

## 이란 핵 문제 관련 최근 동향

### 1. 이란의 핵 개발 현황

#### □ 2010년부터 농축 우라늄 농도 변환

-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, 2010년부터 이란이 농축우라늄 농도를 기존의 3.5%에서 20%로 높임에 따라 고농축우라늄의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증대되고 있음.

#### □ 2011년 11월 IAEA 보고서 발표

- 2011년 11월 8일 IAEA(국제원자력기구)는 이란의 기폭장치 및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.

### 2. 미국의 제재 동향

#### □ 11월 22일 행정명령 공포 및 애국법 적용

- 2011년 11월 IAEA 보고서 발표 후 행정명령 13590호, 행정명령 13382호, 애국법 section 311을 통해 이란을 '주요 자금세탁 우려지역'으로 지정하고,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1개 기업을 블랙리스트'에 추가하였음.

## □ 12월 15일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

- 법안의 핵심은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으로 통과된 제재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발효될 예정임.
-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있거나,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데 도움을 준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.
- 이란산 원유수입과 관련한 제재의 부과 여부는 해당국가가 6개월 내에 충분한 대체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최근 이란산 원유수입을 눈에 띄게 줄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.

## 3. 그 외 국가들의 제재 동향

### □ 영국, 캐나다, 프랑스는 추가제제조치 협조

- 영국은 자국 금융기관들과 모든 이란 금융기관 간의 거래·송금 등 업무를 중단하였음.
- 캐나다도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단절하고, 석유·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금지시켰음.
- 프랑스 역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란 제재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음.

### □ 중국, 러시아는 추가제재 반대

-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UN 차원의 제제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임.
- 중국은 미국 등의 추가 제재 이후에 이란과의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, 특히 러시아의 경우 최근 이란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유전을 개발하기로 합의함.

## □ 일본은 미국의 대이란 추가제재 요청 거부

-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10%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다면 세계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다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음.

## 4. 우리나라의 제재 동향

### □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

- 2011년 12월 16일 정부는 이란 핵개발 등과 관련된 이란의 단체 99개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하였음.
  - 새로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는 그동안 우리 기업과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.

### □ 원유수입중단 사태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

-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입비중이 9.6%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. 이란 제재 법안에 대해 예외나 면제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.
  - \* 12월 18일 미국은 경제 강국 중 하나인 한국은 이란 이외의 국가에서 원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.

조사역 박유정(☎02-3779-5727)  
E-mail : [yjpark@koreaexim.go.kr](mailto:yjpark@koreaexim.go.kr)